

제9차 국제 직업성 호흡기질환 국제학술 회의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윤 임 중

지난 10월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일본의 고도인 교토(京都)의 국제회관에서 제9차 직업성 호흡기질환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어 참석할 기회를 가졌다.

주체국인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58개국 1,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제회관은 1,200여명을 수용하는데 조금의 불편이 없는 규모였으며 국제회의를 위한 모든 시설이 완벽하였다. 예를 들어 연제발표시간은 10분, 질의와 토의 시간은 5분이었는데 연자가 발표하기 시작하면 좌장 앞에 놓인 전자시계가 10분에서부터 카운트다운된다. 8분까지는 파란 불이 켜지고 그 후 10분까지 2분간은 붉은 불이 켜진다. 그래서 좌장이 종을 두드려 제한 시간을 알리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였다. 58개국에서 참가한 외국 인원은 285명이었고 나머지 1000여명은 내국인이었다. 직업성 호흡기질환에 이토록 많은 일본인이 참석한 것은 큰 부러움을 갖게 하였다. 이번 회의에 전에 없이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참가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직업성 호흡기질환의 역사성일 것이다. 1930년 남아프리카의 요하미스브룩에서는 제1차 국제규폐증회의가 개최되었고 1958년 제3차 회의는 국제진폐증회의로 개칭되었다. 국제진폐증회의는 1988년 7차 회의까지 계속되었고 제8차 회의 때는 직업성 호흡기질환회의로 다시 개칭되었다. 즉 규폐증회의가 진폐증회의로, 진폐증회의가 다시 직업성 호흡기질환회의로 명칭이 바뀐에 따라 이 회의에 포함되는 분야도 훨씬 확대되었고 그래서 보다 많은 학자들이 관계

되는 회의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163개의 구연, 169개의 포스타연제가 발표되었고 1,200여명의 학자가 모이게 되었다. 연제를 큰 분야로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 직업성 호흡기 질환의 역학
- 호흡성 유해인자에 폭로되는 근로자의 건강감시
- 직업성 호흡기 질환의 원인, 병리, 진단, 치료
- 작업장의 유해인자관리
- 호흡기 보호기구
- 직업성 호흡기 질환에 관한 정보, 교육, 그리고 수련 등 모두 7개분야

특히 분자생물학과 면역학적 접근으로 직업성 호흡기질환의 연구가 눈에 띄었고 이 분야는 앞으로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된다.

작업환경관리는 의사뿐 아니라 측정 전문가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게 하는 새로운 면모라 할 것이다.

이번 학회 참석의 소감은 회의가 학문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다는 것과 일본인의 한치도 착오 없는 회의 준비와 진행이었다. 다만 필자가 좌장을 맡았던 분야별 회의의 5개연제 중 두연제가 캔슬되었는데 두연제는 모두 일본인이었다. 이번 학회에 중국에서는 34명이 참가하여 외국인으로는 가장 많았는데 각종 국제회의에서 이들의 활약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998년에는 산업의학에 관한 두 번의 국제회의가 우리 나라에서 개최된다. 일본에 결코 뒤지지 않는 보다 성공적인 회의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